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김 수 진*

인천불로초등학교

김 혜 숙

경인교육대학교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과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더 나아가 아버지-자녀간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서구 B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34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인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의 상관분석 결과 세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외 순기능적 의사소통유형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 중 회유형은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 중 평가형, 혼란형, 비난형은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아탄력성은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 학교생활적응, 자아탄력성 간 관계 및 경로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자녀간의 바람직한 대화기법을 탐색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더불어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학교 현장에의 적용이 요구됨을 시사해 준다.

주요어 : 아버지의 의사소통, 학교생활적응, 자아탄력성

* 본 논문은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수진, 인천불로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744번 1길 50

Tel : 032-565-1094, E-mail : arisoo72@naver.com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과 학교, 사회 속에서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 학령기 이전에는 주로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성격과 행동양식·습관 등을 형성하고 적응하지만, 아동이 성장하면서 가정과 함께 학교생활이 갖는 의미는 매우 커진다. 아동의 생활환경이 학교로 확대되고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면서 그들이 당면하게 되는 가장 시급하고 주요한 과제의 하나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변인들에는 개인관련 변인과 가족관련 변인, 사회 관련 변인이 있다(이진향, 2004). 기존에 이루어진 학교생활 적응과 부적응을 결정짓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개인적 요인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 왔다(김민정, 2005; 이아영, 2007; 이정아, 2007; 추미애, 2005).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 개인적 요인 형성의 기초가 되는 곳은 가정이고 이 시기의 어린이들에게 있어 학교생활 적응은 무엇보다 가정에 관련되는 변인들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김승봉, 2005; 서미선, 2004) 가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이 제공하는 환경은 가정의 외형적인 물리적 환경보다 가족 구성원간의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친밀감 등의 심리적 환경이 인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역시 부모이다. 가정 내에서 부모는 자녀가 성장, 발달하는데 사회적 경험과 동일시의 대상이고 또한 대인관계나 교류 양식의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인간의 성장 발달에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의 하나이며, 모든 인간관계 중 가장 기본적인 과제

이다(정명교, 1983). 특히 신체적, 인지적 면에서 급속한 발달을 경험하는 초기 청소년기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기존의 애착과 의존적 태도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가지려는 욕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과 학교환경의 크고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학교 환경에서의 적응에 있어서 가정환경의 영향력이 큰 시기이다.

이런 맥락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주로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은 자녀가 자기 행동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실제의 자아와 기대하는 자아 사이의 부조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고 하였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상호간의 의사소통은 자녀가 사회화를 겪으면서 자아를 확립해가고 사회에서 원만한 적응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김여진, 2006).

이러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개방적이고 순기능적인 의사소통과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문제형 의사소통을 할 때 학교생활적응과는 부적의 관계를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남민숙, 2006; 이정윤, 이경아, 2004; 차유립, 2000). 특히 아버지가 자녀와 개방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자녀는 교사,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며 학교규칙에 잘 적응하고, 문제 있는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는 학교수업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는데(도금혜, 2008), 이것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이정윤과 이경아(2004)의 연구에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학교생활적응을 가장 많이 설명해 주는 변인이라는 결과와 일치함으로써 아버지와 의사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Lamb가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이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아버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져왔다(Lamb, 1981; 곽선정, 2006). 아버지는 자녀의 성장 발달 영역 중 특히 인지학습, 성취동기 발달에 큰 차이를 초래하고(Radin, 1981)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임현수, 2007). 이처럼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서 어머니의 역할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역할이 있고 어머니 못지않게 자녀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아버지와 의사소통유형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소통 수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어머니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연구대상도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아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버지와 의사소통유형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련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녀가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아동의 심리와 행동양식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버지와 자녀의 의사소통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의사소통유형을 Barnes와 Olson(1982)이 제시한 개방형(순기능적)과 문제형(역기능적)으로 구분하여 다른 연구가 대부분인데, 자녀가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고 지각할 경우 학교생활도 잘 하고, 문제형 의사소통을 한다고 지각할 경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도금혜, 2008; 이미현, 2005; 이지민, 2009; 정지연,

2007). 이에 비해 Satir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아버지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영역인 회유형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오히려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이혜강, 2003; 한영숙, 2005). 또 혼란형 의사소통유형은 학교생활적응의 일부 하위영역 중 교사적응과 생활적응영역에서 낮은 정적상관을 보일 뿐 다른 영역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이혜강, 2003; 한영숙, 2005).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회유형 의사소통을 할 때 초등학교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최영화(2003)의 연구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비슷하지만 아버지의 비난형, 평가형, 혼란형 의사소통은 자녀의 전반적인 문제행동과 정적상관이 있다고 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문제형 의사소통으로만 인식하여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유형은 기능적인 의사소통에 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기존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며, 자녀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을 역기능적으로 지각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을 긍정적으로 하게 하는 데에는 개인의 심리적 자원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구자은, 2000; 현은민, 박혜영, 2005)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개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환경이나 개연성 있는 상황적 사건, 혹은 내적·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강정혜, 2009; 정미현, 2003; 허지연, 2004; Block, 1982). 이러한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김봉주, 2009; 박상

회, 2010; 방수산, 2008).

특히 환경적인 결핍이나 역경의 상황에서도 유능한 성인으로 성장한 아동들을 보면 자아탄력적이도록 한 보호요인에는 성별이나 지능과 같은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부모의 일관적인 양육방식과 지지적이고 안정적인 가정의 분위기, 긍정적인 가정의 특성 중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높은 이해 수준과 부모-자녀의 친밀성이 자아탄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Garmezy, 1983, 1985; Mastern, Best, & Garmezy, 1990; Rutter, 1979, 1985, 1987). 또한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양육태도, 가정의 현재 상황, 가족 갈등 등의 가족 요인과 관련이 있으며 가족적 지지가 높은 아동이 자아탄력성이 높다 (정동화, 1997). 특히 오현정(2008)은 부모와 자녀가 순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아탄력성은 높아지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낮아짐을 밝히고 있어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자아탄력성과도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데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은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빈곤, 가정불화, 정신 병력을 가진 부모 등의 위협 요소에 노출된 아동이 발달과 적응을 위협하는 이런 위협요소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한 아동들은 자아탄력성이 높다(권지은, 2003; 박현선, 1998; 유성경, 심혜원, 2002)는 연구결과를 볼 때 자아탄력성은 내·외적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문제 행동을 낮추는 매개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문제가 있거나 역기능적이더라도, 자아탄력성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중재하

거나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이 야기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조사해보면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다룬 연구는 없었고 대부분 의사소통유형과 학교생활적응,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의사소통유형과 자아탄력성의 두 변인 사이의 단선적인 관계나 상관연구에 그쳐 세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기존에는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을 Barnes와 Olson(1982)이 제시한 개방형과 문제형으로 구분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아버지와 자녀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제형 의사소통을 Satir(1972)의 구체적인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하위유형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적 요인으로 기능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즉,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통해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 의사소통유형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확인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서 원만한 아버지-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적절한 부모 교육 자료의 근거를 제시하여 아동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

형,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방 법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과 같은 정의적 발달이 만 10세(4학년)이후부터 형성된다는 근거(Block & Kremen, 1996)에 따라 인천시에 있는 B 초등학교 5·6학년 아동 35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연구자의 의뢰에 따라 담임교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회수된 356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45명(5학년:169명, 6학년: 176명; 남: 179명, 여:166명)의 응답결과를 토대로 자료를 처리하였다.

측정도구

가.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척도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는 남정홍(2001)이 사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남정홍(2001)의 설문지 중 순기능적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검사인 PACI (Parent-Adolescence Communication Inventor-y)를 민혜영(1990)이 번안한 20문항 중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개방형 의사소통 1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

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90이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Satir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주축으로 제작한 김경화(1989)의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남정홍(2001)이 사용한 아버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척도로 평가형, 혼란형, 비난형, 회유형의 4개 하위유형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설문지 역시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었고 각 하위유형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는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전체 신뢰도 계수는 $\alpha=.81$, 하위유형의 경우 평가형 .76, 혼란형 .83, 비난형 .86, 회유형 .65로 나타났다.

나. 자아탄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 Resiliency Scale)를 유성경(2002)이 번역한 것을 채호숙(2008)이 수정·보완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유성경(2002)의 척도에서는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래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거의 그렇지 않다)의 Likert 척도로 답하게 되어 있으나, 채호숙(2008)의 연구에서는 척도 간 비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점(전혀 아니다)에서 6점(매우 그렇다)의 Likert 척도로 바꾸어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이 요구되는 스트레스 사

건 경험 후에 개인의 자기통제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으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역산 문항은 없다.

Block과 Kremen(1996)의 연구에서 18세와 23세의 대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측정했을 때 Cronbach의 α 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81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대인관계 .61, 활력성 .65, 감정통제 .69, 호기심 .68, 낙관성 .67이었다.

다.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척도는 이숙주(2000)와 조영미(1999)의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근거로 김아영(2002)이 『학업동기 표준화 연구』에서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김아영(2002)이 자신의 연구에서 준거 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준거 변수를 위해 1점(전혀 아니다)에서 6점(매우 그렇다)의 Likert 6점 척도의 5개 요인(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전반적 학교생활) 38문항을 제작하였고, 그 중 예비검사와 본 검사 및 두 번의 문항분석을 통해 전반적 학교생활의 요인이 제거된 나머지 4개의 요인(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으로 각각 5문항, 총 20문항이 최종 선정된 것이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아영(2002)의 연구에서 각 요인들의 Cronbach α 는 교사관계 .80, 교우관계 .80, 학교수업 .80, 학교규칙 .72로 나타났으며, 검사 후 4주 후에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검사 신뢰도는 초등학교의 경우 .83으로 보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전체는 .89, 하위 요

인별 신뢰도는 교사관계 .82, 교우관계 .88, 학교수업 .77, 학교규칙 .68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을 위해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인 각 변인들의 기술적 통계자료(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를 분석하며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량

연구에 참여한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 의사소통유형,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 의사소통유형에 대한 기초 통계결과에서 아동이 지각한 순기능적 의사소통의 5점 척도 문항 평균 점수는 3.42로 아동들은 아버지와 의사소통에 있어서 순기능적 의사소통을 비교적 보통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 척도 중에서는 5점 척도 문항 평균 점수로 보았을 때 ‘회유형’이 3.20으로 보

표 1. 각 변인의 기술통계량

변인	N	최소값	최대값	M	SD
순기능적 의사소통	345	1.00	5.00	3.42	.79
평가형	345	1.00	4.33	1.92	.70
역기능적 의사소통	345	1.00	5.00	1.71	.68
혼란형	345	1.00	5.00	1.60	.71
비난형	345	1.00	5.00	3.20	.63
회유형	345	1.00	5.00	3.20	.63
자아탄력성 전체	345	1.50	5.64	4.13	.78
학교생활적응 전체	345	2.10	5.70	4.09	.70

통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형과 혼란형 및 비난형은 각각 1.92, 1.71, 1.60으로 낮게 지각되었다.

또한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평균 4.13점(6점 척도), 학교생활적응은 평균 4.09점(6점 척도)으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주요 변인인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유형,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첫째, 순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 척도 중 평가형, 혼란형, 비난형과는 높은 수준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회유형과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하위 척도에서는 평가형, 혼란형, 비난형은 상호간에 곁고루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나 하위 척도의 평가형, 혼란형, 비난형은 회유형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자녀와 순기능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부모들은 회유형의 역기능적 의사소통도 많이 사용하여 자녀에 대해 수용적인 의사소통을 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순기능적 의사소통의 총점과 자아탄력성 총점과의 상관계수는 .352($p < .01$)로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순기능적 대화를 많이 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중 평가형, 혼란형, 비난형은 자아탄력성과 $p < .01$ 수준에서 의미있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부모가 평가형, 혼란형, 비난형의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 역기능적 의사소통 중 회유형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의미있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차이점을 보였다.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회유형의 의사소통 유형을 할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순기능적 의사소통과 학교생활적응과의 상관계수는 .447($p < .01$)로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순기능적 대화를 많이

표 2.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유형,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N=345)

	순기능적 의사소통	역기능적 의사소통				자아 탄력성 전체	학교 생활적응 전체
		평가형	혼란형	비난형	회유형		
순기능적 의사소통	1						
	평가형	-.472**	1				
역기능적 의사소통	혼란형	-.512**	.621**	1			
	비난형	-.551**	.640**	.722**	1		
	회유형	.431**	-.329**	-.280**	-.333**	1	
자아탄력성 전체	.352**	-.139**	-.173**	-.147**	.250**	1	
학교생활적응 전체	.447**	-.182**	-.270**	-.278**	.247**	.598**	1

** $p < .01$

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중 평가형, 혼란형, 비난형은 학교생활적응과 $p < .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부모가 평가형, 혼란형, 비난형의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다소 낮은 경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 역기능적 의사소통 중 회유형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의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끝으로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보면, 자아탄력성 전체와 학교생활적응 전체 점수 간에 유의미한 정적상관($r = .598$, $p < .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과 학교 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유형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

개 효과를 나타내는지 검토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모델에 근거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3 단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하고, 둘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쳐야 하며,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 때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세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보다 줄어들어야 매개효과를 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인다고 하며, 유의할 경우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표 3>에서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 의 의사소통유형,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다음으로 일련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2

표 3. 순기능적 의사소통유형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N=345)

단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R^2	F
1	자아탄력성	순기능적 의사소통	.352	6.967***	.124	48.537***
2	학교생활적응	순기능적 의사소통	.447	9.246***	.200	85.497***
3	학교생활적응	순기능적 의사소통 자아탄력성	.270 .503	6.134*** 11.440***	.421	124.378***

*** $p < .001$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한 다음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가. 순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표 3>은 순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교생활적응을 종속변수로 하여 자아탄력성이 갖는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자아탄력성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 순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수($\beta = .352, p < .001$)로 나타나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을 종속변수로 넣은 두 번째 단계에서 순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 = .447,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을 추가하여 순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수로 동시에 투입하고 학교생활적응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beta = .503, p < .001$)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으며, 이 때 순기능적 의사소통 유형도 유의한 영향력($\beta = .270, p < .0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 세 번째 단계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므로($\beta = .447 < \beta = .270$), 아동이 지각한 순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학교생활적응은 자아탄력성에 의해 부분 매개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매개변인으로 가정된 자아탄력성과 순기능적 의사소통을 함께 독립변수로 하였을 때, 순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설명력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의 순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 순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설명력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완전매개는 될 수 없고 부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 순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은 학교생활적응 변량의 20%를 설명하였으며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 순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탄력성을 포함한 모델은

학교생활적응 변량의 42.1%를 설명하였다.

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표 4>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각 4 가지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교생활적응을 종속변수로 하여 자아탄력성이 갖는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중 평가형 의사소통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아탄력성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평가형 의사소통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수로 ($\beta=-.139, p<.05$) 나타나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킨다.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을 종속변수로

넣은 두 번째 단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beta=-.182, p<.01$)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을 추가하여 평가형 의사소통유형과 함께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학교생활적응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beta=.584, p<.001$)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이 때 평가형 의사소통유형과 자아탄력성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3단계에서의 평가형 의사소통유형 ($\beta=-.101, p<.05$)은 2단계에서의 평가형 의사소통유형 ($\beta=-.182, p<.01$)보다 그 설명력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넷째 조건 또한 만족시키므로 자아탄력성은 아동이 지각한 역기능적 의

표 4.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N=345)

유형	단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R ²	F
평가형 의사소통	1	자아탄력성	평가형	-.139	-2.595*	.019	6.737*
	2	학교생활적응	평가형	-.182	-3.425**	.033	11.732**
	3	학교생활적응	평가형 자아탄력성	-.101 .584	-2.322* 13.443***	.367	99.299***
혼란형 의사소통	1	자아탄력성	혼란형	-.173	-3.260**	.030	10.624**
	2	학교생활적응	혼란형	-.270	-5.198***	.073	85.497***
	3	학교생활적응	혼란형 자아탄력성	-.172 .568	-3.992*** 13.204***	.386	107.505***
비난형 의사소통	1	자아탄력성	비난형	-.147	-2.744**	.021	7.529**
	2	학교생활적응	비난형	-.278	-5.355***	.077	28.674***
	3	학교생활적응	비난형 자아탄력성	-.194 .569	-4.568*** 13.383***	.394	111.338***
회유형 의사소통	1	자아탄력성	회유형	.250	4.780***	.062	22.850***
	2	학교생활적응	회유형	.247	4.720***	.061	22.281***
	3	학교생활적응	회유형 자아탄력성	.104 .572	2.343*** 12.875***	.368	99.377***

*** $p<.001$, ** $p<.01$, * $p<.05$

사소통 유형 중 평가형 의사소통유형이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 중 혼란형 의사소통유형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든 단계의 모형이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혼란형 의사소통유형은 자아탄력성($\beta = -.173, p < .01$)과 학교생활적응($\beta = -.270, p < .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자아탄력성($\beta = .568, p < .001$)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아탄력성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혼란형 의사소통유형($\beta = -.172$)은 2단계에서 보다 그 설명력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 중 혼란형 의사소통유형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는 자아탄력성에 의해 부분 매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난형 의사소통유형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도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든 단계의 모형에서 독립변인인 비난형 의사소통유형은 종속변인인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어 첫째, 둘째 조건을 만족한다. 또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가지므로 셋째 조건도 만족한다. 이 때 2단계에서의 비난형 의사소통유형의 β 값이 $-.278(p < .001)$ 이었으나 자아탄력성을 포함한 3단계 회귀분석에서는 비난형 의사소통유형의 β 값이 $-.194(p < .001)$ 였다. 즉 매개변인으로 가정된 자아탄력성이 함께 투입되었을 때 아동이 지각한 비난형 의사소통유형의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자아탄력성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 중 비난형 의사소통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 중 회유형 의사소통유형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도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든 단계의 모형에서 독립변인인 회유형 의사소통유형은 종속변인인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어 첫째, 둘째 조건을 만족한다. 또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가지므로 셋째 조건도 만족한다. 이 때 2단계에서의 회유형 의사소통유형의 β 값이 $.247(p < .001)$ 이었으나 자아탄력성을 포함한 3단계 회귀분석에서는 회유형 의사소통유형의 β 값이 $.104(p < .001)$ 였다. 즉 매개변인으로 가정된 자아탄력성의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아동이 지각한 회유형 의사소통유형의 설명력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자아탄력성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 중 회유형 의사소통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아탄력성은 아동이 지각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의 각 하위유형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 학교생활적응,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관계와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서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의 순기능적인 의사소통유형과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이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솔직하고 상호간의 이해가 있는 순기능적인 대화유형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높아지고,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을 때 학교생활적응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에서 회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적도인 평가형, 혼란형, 비난형 의사소통 유형의 경우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순기능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은 부모의 수용과 관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 자아탄력성이 높아지고, 부모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은 부모의 거부와 통제를 많이 경험하게 되므로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며(김혜수, 2005; 오현정, 2008; 장영수, 2008)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박상희; 2010, 방수산; 2008, 신윤자; 2005, 채호숙; 2008)는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고 있다. 특히 아동이 아버지와 순기능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결과는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는 학교에 더 잘 적응하고 문제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을 낮게 지각한다(도금혜; 2008, 이미현; 2005, 이지민; 2009, 정지연; 2007)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 중 회유형을 제외한 평가형·혼란형·비난형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과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고, 회유형 의사소통의 경우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Barnes와 Olson(1982)의 구분에 따른 개방형·문제형 의사소통유형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모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유형을 문제형인 한 가지 유형으로 보지 않고 4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분한 Satir(1972)의 척도를 사용했을 경우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아버지가 회유형의 의사소통유형을 사용할 경우, 즉 아버지가 자녀와 대화를 할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일수록 자녀는 학교에서도 만족스러운 생활이 형성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한 이혜강(2003)의 부모가 회유형 일수록 학교생활적응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 중 회유형일 때 자녀간의 대화자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최영화(2003)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부모와 대화할 때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회유형의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높아지고 회유형 의사소통을 경험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느끼므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국길숙; 2003, 오현정; 2008).

이러한 결과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 중 회유형이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성상 문제형

보다는 오히려 순기능적 의사소통유형과 비슷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서양의 의사소통 문화와 우리의 의사소통 문화가 다른 것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서양문화에서는 언어적으로나 비언어적으로 표현적인 것에 비해 유교적인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자기표현을 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성별에 따라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표현하는 것을 더 절제하도록 강조되어 왔다. 특히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아버지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아버지는 일방적이고 지시적이며 통제하는 경우가 많고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의 대화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자녀가 느끼는 아버지의 회유형 의사소통은 서양과는 달리 순기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전반적인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과는 또 다른 영역에서 의사소통의 만족을 가져다주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는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기능적이고 원활할 때 어머니와의 기능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보다 자녀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된다고 보고한 박시현(2004)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아버지-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또한 아동이 심리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고 기능하기 위한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 내에서 아버지들이 기능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돕는 중재교육과 아버지와 자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친밀하고 수용적인 의사소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

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아탄력성이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유형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또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자녀와 아버지의 대화가 순기능적이고 아버지가 자녀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희생적인 태도를 가지는 회유형일 때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았다. 반면 아버지가 자녀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독선적으로 이끄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할 경우 학교생활적응 수준은 낮았다. 그런데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탄력성이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비해 자아탄력성의 상대적인 설명력이 높아졌으며 아버지와 자녀의 의사소통의 설명력은 자아탄력성이 투입되면 다소 감소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 환경적 요인인 아버지-자녀간의 의사소통도 분명 유의한 관계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동의 개인요인인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서 보다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보여주는 이지미(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이 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학교성적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정서 변인들(정서교양, 정서조절능력)의 중재효과가 있다는 정인숙(2010)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이 학교생활적응에 많은 부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자신들이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정서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등의 정서적

유능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더 기여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본 연구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더 설명력을 갖고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아버지와 의 의사소통유형과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단편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세변인의 인과적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이 부분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자아탄력성은 아동이 아버지의 부정적 의사소통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완충시켜 문제행동이 야기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고 보호기제로 작용하며,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들은 가정 내의 위협요소에 따른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보다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세 변인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했으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경로를 확인하였다. 이는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긍정적인 아버지와 의사소통과 개인의 심리적 자원인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조력할 수 있는 보호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아버지-자녀 간의 의사소통,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5, 6학년 아동만을 연구 대상으로 표집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아동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표본을 대상으로, 아동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연령의 대상과 학교 급으로 확대하여 아버지의 영향이 연령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폭넓게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아버지-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조사는 아동이 아버지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아동의 입장에서 제한된 연구를 실시하였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관점에서도 좀 더 폭넓게 적용하여 상호간에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바람직한 아동의 인성 발달을 돕고 원만한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지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버지들이 기능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 결과는 종래에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과 같은 동성 간의 모델링과 관계만 중요시하던 전통적인 부모-자녀 관계 및 자녀교육에 있어서 이성간의 상호보완적인 교육과 아버지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해주는 것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의사소통에 있어 보다 긍정적인 관계를 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최근 가족치료에서는 가족원과의 의사소통을 중요시하여 가족 및 아동 문제의 원인을 의사소통에 두고 그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아버지와 의 순기능적인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줄이고 학교생활적응력을 높여나가는데 의사소통의 가족치료가 필요함을 지지해 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의

사소통 가족치료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더욱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여 원만한 적응을 조력할 수 있는 보호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는 현대 아동들에게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적, 사회적 개입 방안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강정혜 (200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선정 (2006). 아버지와 의사소통 수준, 정서적 교육지원, 학업기대수준이 청소년의 성취동기 및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자은 (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길숙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지은 (2003). 부모 및 또래 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화 (1989).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2005).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가정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주 (2009).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과의 관계.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봉 (2005).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2002). 학업동기 척도 표준화 연구. 교육평가연구, 15(1), 157-184
- 김여진 (200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 (2005).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완벽주의 및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민숙 (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정홍 (2001).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금혜 (200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의사소통 유형 및 아동의 성취동기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0(4), 139-155.
- 민혜영 (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희 (2010).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실패내성, 학교적응 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시현 (2004).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 및 가족체계 유형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 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방수산 (2008).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대구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미선 (2004). 아동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기 북부 지역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윤자 (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현정 (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이미현 (2005).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기능이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아영 (2007). 청소년의 외모 콤플렉스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아 (2007). 중학생의 공격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윤, 이경아 (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6.
- 이지미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민 (2009).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자아정체감, 청소년의 학교적응간의 관계 구조. 한국생활과학회지, 18(5), 1021-1033.
- 이진향 (2004). 초등학생의 지각된 학급 풍토와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강 (200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대인관계 성향과 학교적응의 관계.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현수 (2007). 초등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수, 박영숙 (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자아탄력성과 친구 간 갈등해결 전략과의 관계. 스트레스연구, 16(3), 271-280.
- 정동화 (1997).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탄력성. 교육문제연구, 9(1), 205-223.
- 정명교 (1983).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특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현 (2003).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인숙 (2010).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학교적응 간 관계에서 정서교양의 중재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연 (2007). 부자가정의 가족기능과 의사소통

- 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공회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유림 (2000).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호숙 (2008).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실패내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화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유형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추미애 (2005).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숙 (2005).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의사소통 유형과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3), 71-82.
- 허지연 (2004).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 및 촉진적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은민, 박혜영 (2005).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9-29.
- Barnes, J.,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lock, J. (1982). Assimilation, accommodation, and the dynamics of personalit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3(1), 281-291.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Garnezy, N. (1983). Stress in childhood. In N. Garnezy. & Rutter, M(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pp.170-198)*. New York : MacGraw-Hill.
- Garnezy, N. (198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 Garnezy, N. (1985). Stress resistant children : The search for protective factors. In J. Stevenson (Ed.)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 Psychology*, Oxford, England: Peergamon press.
- Lamb, M. E. (1981). Father and child development: An intergrative overview. In M.E. Lamb(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 Wiley, 1-70.
- Mastern, A. S., Best, K. M., & Garnezy, N. (1990). Resilience and deveolpment: Contributions from the sty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425-444.
- Radin, N. (1981). Child-rearing father in infant families. *Merrill-Palmer Quarterly*, 27, 489-514.
- Rutter, M. (1979). Early sources of security and competence. In J. Bruner and A. Garton(Ed.) *Human growth and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ic*, 147, 598-611.
- Rutter, M. (1987).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 Orthopsychiatry*, 57, 316-331.
- Satir, V. (1972). *Conjoint family therapy*. California: Science of Behavior Books.
- ◆ 원 고 접 수 일: 2011년 8월 16일
 - ◆ 수정원고접수일: 2011년 9월 14일
 - ◆ 계 재 승 인 일: 2011년 9월 22일

Father's Communication Style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Mediation Effect of Ego-Resilience

Su-Jin Kim

Pullo Elementary School

Hye-Sook Kim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research aims to make people realize the importance of styles of father's communication and ego-resilience in school life adaptation and, furthermore, provide necessary data for the communication between father and children by confirming the mediation effect of ego-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yles of father's communication, which the child recognizes, and the school life adaptation. The selected research questions to achieve such research purpose are like the following. First, what is the correlation among school life adaptation, ego-resilience, and communications styles of father that child recognizes? Second, does the ego-resilience show mediation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hool life adaptation and communication styles of the father that child recognizes? The subjects for this research were 345 children in 5th and 6th grades from B elementary school in Seo-gu, Incheon. SPSS 18.0 program was used for the collected data, and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in order to discover the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the mediation effect of ego-resilience. The summary of this research is like the following. First, as the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of the father's communication styles, ego-resilience and the school life adaptation, which the child recognized, the three variabl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the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communication styles that child recognized, the placating style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ego-resilience and school life adaptation, and among dysfunctional communication styles, the intellectualizing style, distracting style, and blaming style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ego-resilience and school life adaptation. Ego-resilience and school life adaptation showed positive correlation. Second, after looking at the mediation effect of ego-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of the father's communication style and school life adaptation, the result showed that ego-resilience had partial mediation effect in the relationship of the father's communication style and school life adaptation. In this research, it has significance in the aspect that it confirmed the relationship and route between the father's communication styles, school life adaptation, and ego-resilience, which child recognized. Therefore, the effort is required to research and apply desirable communication method between fathers and children in order to help students to adapt well in school life, and moreover, it is also required that ego-resilience improvement program gets developed and applied at the school field.

Key words : *Father's communication, School adjustment, Ego-resilience*